

한국파렛트 풀  
중평물류센터 개소식



한국파렛트풀(주)

한국파렛트 풀(회장 서병륜)은 충북 진천면 초평면 진암리에 '중평물류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7월 29일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거행했다.

중평물류센터는 총면적 2,460평으로 창고 4개동(490평)과 사무실 2동(80평) 등 건평 570평 규모로, 파렛트 5만매를 보관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있는 KPP물류센터중 3번째로 큰 규모로 파렛트 컨테이너와 세척기 및 기타 장비 등의 최신 기기들이 설치됐다.

충북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이 물류센터는 중부고속도로 중평IC에서 1.5km에 인접해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이 물류센터는 향후 한국파렛트 풀, 한국컨테이너 풀, 한국로지스 풀 등 3개사 통합브랜드인 'LogisALL' 사업에 있어서의 전진기 지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류**



한국로지텍  
'글로벌'로 상호명 변경

GLOVIS

(사)한국물류협회의 이사사인 한국로지텍주식회사(대표이사 이주은)가 지난 7월 1일부터 'GOLBAL VISION'의 합성어인 'GLOVIS'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한국로지텍에서 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하고 북미 물류법인 진출을 비롯, 중국, 유럽 등 세계 각 지역으로 해외 물류사업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선진물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물류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글로벌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혁신 Know-How와 세계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e-Biz환경과 SCM체제에 적합한 선진물류시스템으로 각 기업의 경영환경과 Needs에 적합한 '맞춤물류서비스'에서, 기업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토털물류서비스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이다.

또한, 중고차 판매 등 유통, 판매사업 진출을 통해 물류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류**



토로스물류

'삼성전자로지텍'으로 사명변경



삼성전자로지텍

"토로스물류가 아니라 삼성전자로지텍으로 불러주시십시오."

물류전문회사 토로스물류(주)가 지난 8월 1일자로 삼성전자로지텍(주)(대표이사 : 정형웅, 영문명 : Samsung Electronics Logitech)으로 새롭게 사명을 변경하고 삼성전자의 물류전문회사로서 재도약한다.

새로 바뀐 삼성전자로지텍(주)의 'Logitech'은 Logistics와 Technology의 결합어다. 물류전문성(Logistics)과 첨단디지털기술력(Technology)을 결합해 최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전문회사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삼성전자로지텍(주)의 정형웅 사장은 "이번 사명변경을 계기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물류혁명을 선도하고 창의와 도전이 살아 숨쉬는 기업으로 거듭나 고객이 신뢰하는 디지털 물류전문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영업/서비스/물류를 일관된 프로세스로 통합하는 'One Samsung'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토로스물류의 사명변경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One Samsung'이란 삼성전자를 구심점으로 국내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와 서비스를 하나의 체제 아래 묶어 강력한 시너지(판매경쟁력)를 내기 위한 작업이다. 즉 그동안 별도법인으로 운영되 오던 것을 SCM차원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상에 위치시킨 것이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이번 사명변경과 'One Samsung'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삼성전자의 물류와 서비스를 한 축으로 고객접점에서의 통일된 이미지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외이미지 향상은 물론 직원들의 자긍심고취, 우수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류**



정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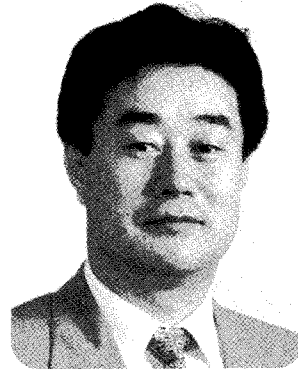
삼성전자로지텍(주) 대표이사

용마유통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용마유통주식회사



김인호

용마유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사)한국물류협회의 부회장이신 용마유통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인호)가 지난 7월 1일 창사 20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자사 물류센터에서 창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용마유통 임직원 전원이 참석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 고객에게는 가장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토록 노력한다.
- ▲ 공명정대한 경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국가와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
- ▲ 주주에게는 정당한 이익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 부단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끊임없는 경영 혁신을 통하여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용마유통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항상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이다.

용마유통은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제약업계의 물류공동회를 통해 열악한 국내물류가 나아갈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로 했다. **물류**

TC코리아  
영상물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Total Logistics Korea

국내 DVD영상산업 유통구조 현황 및 문제점을 확인하여 영상물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6월 12일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TC코리아 물류혁신연구소 (소장: 오영택)와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영상협회가 주관한 '일본 전문가 초청 국내 영상물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영상물 유통업계에서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업계의 인식이 만연해 있고, 예전에 음반업계에서 이미 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현재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영상물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미나에 대해서 물류학계를 비롯해 영상 관련업체의 높은 관심속에 개최돼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DVD영상산업 유통구조 현황과 전망'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김형석 교수가, '영상물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를 TC코리아 물류혁신연구소 오영택소장이, '일본 영상물 공동물류시스템운영 성공사례'를 일본 (주)JDS 물류시스템 본부 다나카 겐지(田中 謙次)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영상업계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정형미 사무관이 나와 발표했다. **특류**



대신정보통신  
금융솔루션사업 호조



- 금융 SW 부문, 올 1/4분기 수주실적 작년 이 부문 매출 규모 달성  
대신정보통신(www.dsic.co.kr 대표이사 : 이재원)이 최근 금융권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며 물류SW시장에 이어 금융SW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국사무수탁과 미래에셋투신운용의 신탁회계시스템 계약을 시작으로 농협중앙회(파생상품시스템), SK생명(파생상품시스템), 국민은행(증권투자신탁시스템), 조흥은행(증권투자신탁시스템) 등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 올해 금융 SW 1/4분기 수주실적이 작년의 이 부문 매출 규모를 달성 했다.

금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e-Biz 사업본부 이종호 이사는 "금융 솔루션 전문업체로서, 국내 시장환경에 맞는 특화된 솔루션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본부 조직을 정비하여 사업을 집중한 것이 주요 했다"고 말했다.

대신정보통신의 통합자산관리시스템(e-Travis)은 자산운용업법 및 예탁결제시스템 적용에 따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신규 상품(외화유가증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향후 신상품을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화 되어있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 제조업체 전문시스템통합(SI)업체인 아이콜스(주)(대표 문정식 <http://www.icols.com>)과 디지털물류정보서비스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물류정보시스템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류**



이재원  
대신정보통신 대표이사

(주) 한진

노사간 임금교섭 무협상 타결

# 韓進

◆ 물류대란 이후 물류업체 최초 무협상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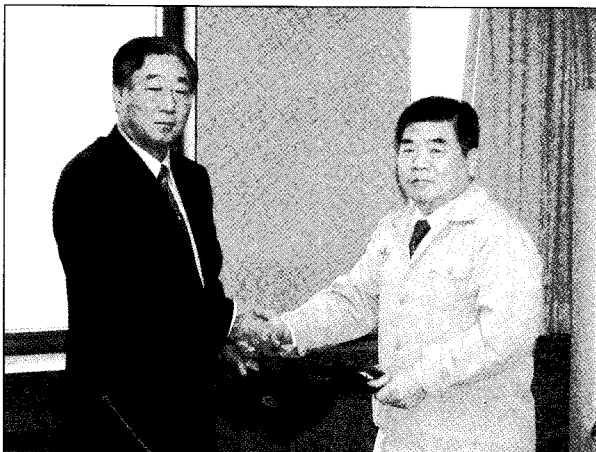
국내 물류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주)한진(www.hanjin.co.kr 대표이사: 김인진)이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무협상으로 타결했다.

지난 7월22일 서울 중구 해운센터 소재 본사에서 노사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일임키로 하는 임금교섭 무협상 타결을 합의 하였다 고 밝혔다.

이로써 한진은 전산업에 걸쳐 노동쟁의가 들끓었던 88년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노동쟁의가 없는 사업장이 되었으며, 금번 무협상 타결로 올해도 그 기록을 이어가게 되었다

김인진 사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과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로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무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회사가 살고 근로자가 사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속하고, 노사 양측이 일치단결하여 하반기에는 고객서비스 향상에만 전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측 대표인 이영길 위원장은 "외국 선진물류업체의 국내 진출 등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업계환경을 고려, 우선 회사의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물류**



한진택배

울산터미널 신축개장

# 韓進

- 울산지역 택배 개인고객 집하시간 대폭 단축
- 기업 대량물량 보관·배송 기능도 가능

(주)한진(www.hanjin.co.kr 대표이사: 김인진)은 지난 8월 7일 오후 5시에 울산시 선암동 석유화학 공단내에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택배 울산터미널 준공식을 가졌다.

울산지역의 택배 집배송 서비스 개선과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세워진 이 터미널은 총사업비 35억을 투자, 대지 3,358평에 물류창고 806평으로 건립하였으며, 94m짜리 택배화물 분류 자동 컨베이어 시설을 갖췄다.

이번 울산터미널 신축으로 오전 화물분류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택배화를 집하시간이 빨라지고 기업 대량물량의 창고 보관과 택배배송의 동시 수행으로 기업고객 택배 서비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축 터미널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일시 장치장(CD ; Container Depot)으로도 활용되고, 특히 석유화학 공단내 수출입 화물의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물류**



CJ-GLS

사가와규빈과 택배업무 제휴



CJ-GLS (대표 : 박대용 www.cjgls.com)는 일본택배업체인 사가와규빈(사장 : 마나베쿠니오 ; 眞鍋邦夫)과 지난 7월 9일 조선호텔에서 양사간의 택배업무 제휴조인식을 가졌다.

양사는 한·일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물류량이 늘어남에 따라 직접적인 물류채널을 마련하고 양사간의 택배기술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다음과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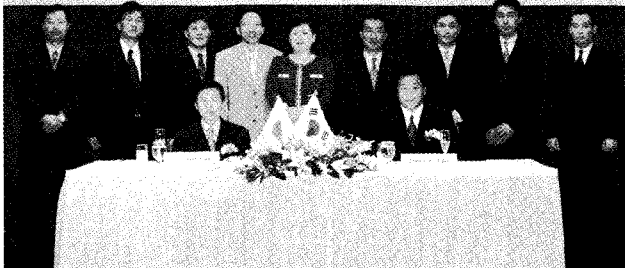
▲양국간에 늘어나는 택배물량을 독점으로 한국에서는 CJ-GLS가, 일본에서는 사가와규빈이 서로 처리하는 파트너 역할 수행 ▲사가와규빈과 CJ-GLS 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균일한 택배서비스 제공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교류 및 협력증진 ▲지리적으로 일일생활권에 있는 양국간에만 할 수 있는 특화 된 서비스의 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CJ-GLS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국제택배를 확대하고 해상운송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사가와규빈은 안정적인 한국 택배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 확보와 중북부지역의 택배사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B2B 택배와 더불어 B2C로 서비스를 확대해 매출을 급성장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강정호 CJ GLS택배본부장은 "이번 양사간의 제휴가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양사가 자국 내에서 B2B, B2C에 대한 공통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까지의 성장성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물류**

川急便 CJ GLS 業務提携 調白

TRANSPORT COMMUNICATION SAGAWA 2003年 7月 9日(水) CJ GLS



현대택배

C2C 집중육성, 아파트 부녀회를 물류포스트로



현대택배주식회사  
HYUNDAL LOGISTICS CO.,LTD.

현대택배(대표 : 강명구)는 C2C물량의 적극 유치를 위해 편의점·주유소 등 기존의 택배취급점 외에 아파트 부녀회를 물류포스트로 적극 지원한다

개인택배 물량 중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아파트 부녀회 신뢰와 공신력이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아파트주민들은 부녀회를 통하여 일반 택배취급점처럼 택배물건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데 낯선 택배사원 방문시 갖는 경계심없이 아파트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 향후 택배문화의 한 틀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부녀회원들 중에서 일정 인원을 현대택배 공식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하여 해당 아파트 택배 이용자들에게 항상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인택배는 대량물량을 취급하는 기업택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어 택배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생활속의 택배'가 자리잡아가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현대택배 관계자는 "우리나라 택배문화는 문앞까지 화물을 전달하는 DTD(Door to Door)서비스에서 점차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택배취급점문화로 바뀌고 있다"면서 "아파트부녀회를 통한 택배서비스는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이용이 기대되며 향후 '생활택배'가 견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류**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광영욱 사장 단독 선임



- 열린경영 · 노사화합 실천전문경영인 실적 평가받아  
법정관리 중인 대한통운의 관리인에 광영욱 사장이 단독으로 재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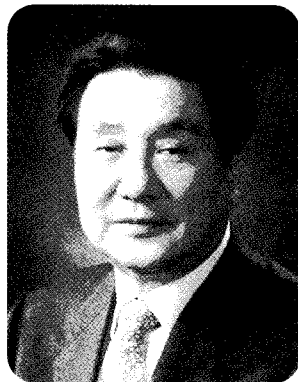
대한통운은 지난 7월 1일 광영욱 사장이 법정관리인에 단독으로  
재선임돼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임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수년 전 존폐의 위기에 처한 대한통운을 안정화 꾀도에  
올려놓고 노사화합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모범적인 기업 분  
위기를 창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광 사장의 경영능력이 높게 평  
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사장은 지난 2001년 7월 대한통운의 법정관리 인가시 기존 경  
영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공동관리인에 선임됐다. 이후  
광 사장은 '열린경영' 과 '노사화합' 을 몸소실천, 대한통운의 잠  
재력을 극대화시켜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실현하는 등 전문경  
영인으로서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2002년에 이어 올해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기업 우  
수 경영자로 선정돼 특별 보너스를 받기도 했다.

대한통운 직원들은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 임직원들이  
흔들림없이 회사 살리기에 한마음, 한방향으로 동참한 것이 좋은  
결실을 낳았다"면서 "우선 이 같은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  
리며 물류기업의 공익적 임무와 수익경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  
다"고 입을 모았다.

광사장은 대한상의 유통물류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전경련  
남북경협위원회 운영위원, 전경  
련 SOC위원회 운영위원 및 한  
국관세협회장 등 관련분야에서  
양성한 활동을 하고있다. **물류**



광 영 욱  
대한통운 대표이사

한국물류정보통신(주)  
백옥인 대표, OECD 해운위원회 부의장에 재선출



- 국내 최초로 OECD 산하위원회 부의장 3회 연임  
(사)한국물류협회 부회장이기도 한 백옥인(白玉寅) 한국물류정보  
통신(주)(www.klnet.co.kr) 대표이사가 지난 6월 19~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운위원회에서 부의  
장에 재선출 됐다.

지난 1998년 4월 한국인 최초로 OECD 해운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백 대표는 지난 2001년 1월에 재선출된 데 이어 이번에도  
선출되어 세 번씩이나 연이어 부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주목을 받  
고 있다.

백 대표는 세계해운정책의 방향과 해운산업관련제도를 결정하  
는 OECD 해운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국간의 정책조율 등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오랜 국제해운정책에 관한 그의 경륜과 지식을 보다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위원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부의장  
에 재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해무관과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는 등 해양수산부에서 30  
여 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운정책실무에 관한 많은 경험과 실  
무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백 대표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는 해운  
물류 IT전문기업인 한국물류정보통신(주)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한국인으로 OECD 산  
하위원회의 의장단에 진출한 사례는 있지만, 세 번씩이나 연임된  
것은 유례없는 일로써 한국 해운외교의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세계해운 정책의 방향

과 해운산업 관련제도를 결정  
하는 OECD 해운위원회에서 민  
간인 신분인 부의장이 선출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류**



백 옥 인  
한국물류정보통신 대표이사

기아자동차  
사이버 물류교육 좋은 반응



기아자동차(사장 : 김뇌명)가 새내교육과정으로 지난 5월부터 사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물류과정 프로그램이 타 업체로부터 모범적인 임직원 물류교육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아자동차가 개설한 사이버 물류과정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물류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물류비 절감 및 물류합리화를 위해 개설됐다. 총 20시간으로 구성된 사이버 물류과정은 기초편, 실전편, 응용편 등 3개 섹션으로 나뉜다. 기초편은 전반적인 물류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실전편은 물류시스템에 이해하면서 기아자동차의 물류시스템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응용편은 물류개선 및 동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의 수료자는 최종평가와 함께 주어진 6개의 연구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비용절감방식에 대해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의 집합교육은 교육대상인원이 한정되고, 교육비용의 1인당 5만원 초과, 교육 후 파급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노동부 인정 교육과정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아 1400여명의 공장근무 일반직을 대상으로 우선 수강하게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그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된 사이버 교육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물류**

▣. 사이버 물류교육 화면(초기화면)



물류관리의 이해  
Logistics Management

SKIP

기아자동차  
지방자치단체들 기아차 사주기 운동 발벗고 나서



- 토박이 기업이 잘돼야 지역경제가 산다

국내경기 침체로 자동차 내수시장 불황이 장기화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토박이 회사의 차 팔아주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는 한편 자동차 회사에 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도 화성시(華城市)는 24일 시의원, 간부공무원, 관내 읍면동장·기업인 등 120명이 확대간부회의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우호태(禹浩泰) 화성시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시청회의를 열고 "미국의 디트로이트시나 일본의 토요타시 등 자동차회사가 자리잡은 도시들은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며, 지역주민 또한 내 고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등 토박이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박이 회사인 기아자동차에 대해 지역주민, 기업인, 기관단체 등과 함께 <내 고장 차 사주기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상덕(愼相德)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장은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하며,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광명시도 시의회,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등 각급단체들이 광주공장발전자문위원회와 기아자동차육성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7월부터 시청민원실, 시립도서관, 무등경기장 등 12곳의 전광판에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기아자동차를 탑시다' 라는 문구의 문자방송을 내보내고, 시내 중심가와 상가 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내 고장 차 사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고향인사를 대상으로 편지 발송 ▲기아타이거즈 야구경기 때 캠페인 실시 ▲택시 신규증차 시 기아차 구매협조 요청 ▲시·직속기관 각급단체 공장견학 등을 통해 기아차 구매 판촉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물류**

㈜태평양

제3회 투명경영대상 수상

## AMORE PACIFIC

-물류정보화 및 SCM활동 지속적 추진

㈜태평양(사장 : 서경배)이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한 제3회 투명회계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700여 상장기업 중 가장 투명성 있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투명회계대상은 투명한 회계처리 및 충실한 재무제표 공시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건전한 회계관습 정착에 기여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서, 국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며, 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그간 연구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회계 투명성 평가모형을 개발, 이를 통해 상장기업을 선정했다.

㈜태평양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2000년부터 '디지털 드림 컴퍼니'라는 기치 아래 기간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태평양은 생산·물류·영업 등 사내 각 부문의 정보와 업무를 통합하고 최적화하는 SCM(공급망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1년 4월부터는 DDP(디지털 드림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설치해 회사 내의 모든 시스템을 ERP(전사적자원관리)로 재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구축된 ERP 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즉시 분석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재고정보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재고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투명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감시체제를 강화해 왔다. **물류**

세정

인디안 상표 2003년 상반기

히트상품선정

## SEJUNG

세정(회장 : 박순호)의 '인디안'이 지난 6월 한국일보사가 주관한 2003년 상반기 히트상품에서 장수 의류부문 히트상품에 선정됐다. 인디안은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독창적인 판매기법 등으로 팔록할 만한 매출신장을 거두며 대중을 기반으로 한 국민 브랜드라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자체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력을 보유하고 고객 위주의 제반 판촉 및 서비스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진정한 국민브랜드로 IMF 이후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디안은 2001년 하반기 비 및 외 변화를 기점으로 유통에 있어서 대형화 전략을 추진해 편의성 중심의 신규 유통 개척으로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였다.

이 회사앞으로도 250여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시스템(DBMS)을 구축하고 자동물류 센터를 건립하는 등 경영 환경 및 효율 개선에 나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의 주요 브랜드인 '베스파', '런던' 등을 통해 지난해 총 2631억원 매출에 645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했다. **물류**

